

Paminy

2018 4월-6월 vol.21

봄;바람이
살랑살랑
팩컴에
불어옵니다.



피플 - 정비부 백형채 부장
라이프치히 도서전
CAMELLIA : 장사도
봄에 떠나는 걷기 여행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All About Printing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ONE STOP TOTAL PRINTING SERVICE **FOR THE BEST, BY THE BEST!**

팩컴은 One-stop Print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전통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인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otal Graphic Solution Provider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과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여, 지속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2 8층 (정자동 젤존타워2) | TEL : 031-718-3666 | FAX:031-718-5857

Pacom

Pacom A&P

Book^make



- 02 피플 백형채 부장
- 03 스포츠 잠실 농구장 다녀왔습니다
- 04 건강튼튼 미세먼지 대처법
- 06 칭찬릴레이
- 07 상식톡톡 유튜브 강의
- 08 북페어 라이프치히 도서전
- 10 페스티벌 2018 Spring Festival
- 12 힐링로드 CAMELLIA : 장사도
- 14 여행백서 봄에 떠나는 걷기 여행
- 16 북리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17 꿀팁창고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 정화 식물
- 18 찰칵소리
- 20 팩컴뉴스



아마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테지만, 팩컴의 '맥가이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대체로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질 것이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군포에도 번쩍, 안산에도 번쩍. 이 분의 휴대폰 통화 최근 기록을 확인하면 하루 평균 약 20통 이상이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언제나 친절환 전화 응대가 생명이신 분. 일과 시간 후에도 집에서 온 전화보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중히 여기는 이 분이 분은 바로 팩컴 기계 정비의 달인, 뭐든 해결하는 마이다스의 손, 백형채 부장님이다. 심지어 이 기자와의 인터뷰 진행 도중에도 연락을 받고는 다시 현장으로 쏠살같이 출동해 버린 백형채 부장님! 해서 평소 알고 있던 백형채 부장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재해 볼까 한다.

백형채 부장님은 이곳 군포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전남 장흥 출생이며, 학창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후 1984년 8월부터 현재까지 팩컴에 몸 담고, 오직 팩컴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다소 왜소한 체형에 곱슬머리가 특징적이며, 범상치 않게 풍기는 특유의 예리함이 엿보이는 그는 평소 주머니에 딱 한 가지의 작은 공구만을 갖고 다닌다. 단, 작은 공구 하나뿐이라고 알잡아 보는 것은 금물. 이 공구 하나면 공장 내 모든 기계의 이상 증상을 금세 파악할 수 있으며, 드문 경우이지만 한 번에 해결을 못 할 경우 밤낮을 잇고 일에 몰두하

여 결국 해결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성실함과 우직함,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그가 획득한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무려 팩컴 전 직원 중 최다 자격증 소지자라는 사실.

인터뷰 도중에도 현장으로 출동할 정도로 각 부서에서 백형채 부장님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듯 싶다. 과중한 호출에 간혹 불멘소리를 섞어 응대할 때도 있다지만, 이는 일을 마다뜨려 나오는 희심의 웃음이라는 정비부 직원의 제보. 말로만 투덜거릴 뿐, 막상 친절하고 깔끔하게 일을 해결하고 돌아서는 모습은 영락없이 촌데레(겉으로 무심한 듯 행동하지만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의 이런 다정한 천성은 어디 가질 않아서, 늘 화목한 가족 관계를 자랑한다. 처가댁과도 사이가 좋아 주말에는 동서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으며, 금슬도 좋아 부부가 함께 회사 앞이나 집 뒷산에도 함께 운동 삼아 다닌다고 한다. 슬하 장성한 두 아들이 있으며, 어쩐지 곧 자녀의 청첩장을 받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기자의 (언제나 그렇듯 아무 근거 없는) 예감이 든다.

여기에 백형채 부장님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덧붙이자면 그

어렵다는 금연에 성공하였고, 회사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수치들이 나올 경우 바로 해결하여 이듬해 검진에서는 정상 수치를 받는다는 것. 공장의 기계 정비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역시도 자가 정비(?)에 매진하는 듯하다. 건강을 위해 콜레스테롤이 많은 오징어는 삼가고, 기름진 삼겹살보다는 오리구이를 선호한다는 것이 현재 이 기자가 밝혀낸 자가 정비의 비결 중 하나이다.

1층의 운전 입구 우측 작게 자리한 정비부 사무실, 인터뷰 도중 이 기자에게 차한 잔을 권하는 아주 잠깐의 여유 속에서도 공장 내 여러 기계들의 활용과 넘치는 아이디어로 골똘해 있는 백형채 부장님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현장 내 찬 기운이 다 무색해질 정도였다.

팩컴의 만능 맥가이버, 백형채 부장님의 늘 변치 않는 일에 대한 아름다운 열정. family가 앞으로도 꼭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다! [P 이원성](#)

팩컴의 맥가이버, 백형채 부장님!





잠실 농구장 다녀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기자는 야구 광팬(?)으로써, 시즌마다 야구장만을 전전하는 몸이다. 그러나 얼마 전 운 좋게 서울 SK 나이츠 티켓을 입수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농구 경기 직관(직접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않고 감사히 받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발걸음도 가볍게 잠실학생체육관으로 향했다.

이 날의 경기는 서울 SK 나이츠 팀과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였으며, 의외로 인파가 많이 몰려 놀라움을 금치 못 할 정도였다. 알고 보니 중요한 경기도 경기이지만 각 팀의 감독들이 LG에는 현주엽, SK에는 문경은으로, 소실적 날고 뛰던 유명 농구선수들이었다고. 비단 경기뿐 아니라 왕년의 스타들까지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황에 구름처럼 많은 관중들이 모인 것이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농구장에 이른 입장을 하여 이곳 저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늘 보러 갔던 야구와는 달리, 농구선수들과 팬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팬의 마음은 팬이 아는 법, 내심 부러움이 느껴졌다. 또 그렇게 다니던 야구장에서는 나에게 날아오는 공을 하나도 받지 못 했는데, 이곳에서는 선수들이 관중을 향해 던져 주는 미니 공까지 받게 되는 소소한 행운이 있었다. 경기 도중 휴식 시간에도 관중

들이 지루해 하지 않게끔 진행되는 팬 서비스 이벤트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전 예약을 해야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구경만 하는 입장인 이 기자로써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또한 실내체육관인 관계로 선수들이나 치어리더 등 관계자들이 한 눈에 잘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순간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이 기자가 잘 아는 치어리더였다. 얼마 전 배구장에 왔던 것을 봤던 터라 내막을 물어보니 농구나 배구 등의 경기에는 흥을 폭발시켜 주는 치어리더가 많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지원을 나온다고, 확실히 흥이 넘치는 체육관 내부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큰 음향 소리가 귀를 자극하고, 홈 구장의 일방적인 응원 소리가 우레처럼 들려 왔다. 어찌 응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마저 들 정도였다.

10분 경기하고 휴식, 이런 방식으로 총 네 번의 경기를 한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었기에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경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 눈을 땔 수 없었고, 눈 깜짝할 새 올라가는 점수와 양 감독들이 벤치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큰 음향장비를 뚫는 사자 후로 열정적으로 코치하는 모습, 거기에 부

응하여 맹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도 제법 쏠쏠했다. (비록 덩치 큰 선수들을 바로 코앞에서 보니,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단점은 있었지만 말이다.)

덧붙이자면 늦은 밤 10시에 시작되는, 조금 색다른 농구 경기도 있다고 한다. 바로 매년 12월 31일의 경기인데, 다음 해 첫 날 0시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선수와 관중들이 함께 들을 수 있고, 다채로운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멋진 자리에 이기자가 빠질 수는 없는 법, 올해 12월 31일에는 꼭 농구장을 가봐야겠다는 메모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 가까운 안양체육관에서도 농구 경기를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체육관에도 한 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다가 야구 광팬과 농구 광팬을 겸하게 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이원성**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 대처법



이제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인 봄이 다가온다.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최상의 대처법이라고 들 하지만, 며칠 동안이나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지 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바로 실천에 옮겨 보자!

1. 마스크와 안경 착용

일반 보건 마스크보다는 먼지 차단율이 높은 황사용 마스크(KF80이상,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은 것)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보그 마스크는 N99 필터를 사용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크는 턱과 코가 감싸지게 안면에 맞추고, 코 지지대를 위쪽으로 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빈틈이 없는 상태로 클립을 눌러서, 코가 지지대 쪽에 완벽히 밀착되게 착용해야 한다.

2. 물 수시로 마시기

물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효과가 있다.

물이나 농도가 진한 녹차를 자주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된다. 녹차의 탄닌 성분에는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주 마셔 주도록 하자.



미세먼지 심한 날엔 삼겹살? NO!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의 지방이 먼지를 제거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지용성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늘이 파랗고 맑은 날엔 미세먼지가 없다? NO!

하늘이 파랗고 건물들이 뚜렷하게 보이면 '하늘이 깨끗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맑은 황사' 현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일 뿐, 미세먼지가 아예 없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맑은 황사'에 속지 말고, 미세먼지 예보를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3. 외출 후 샤워는 필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한 경우, 몸을 깨끗이 닦아 주어야 한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완전 차단이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입안은 되도록 구강 세정제로 청결하게 행귀주는 것이 좋다.

또한, 입고 나갔던 옷가지들은 겉보기에 오염되어 있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털어서 보관하고, 긴급적이면 바로 세탁해주는 것이 좋다.



4. 환기 및 청소

이른 새벽 또는 아침은 사실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환기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간대이다.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에 환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보를 확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환기 시간은 너무 긴 것보다는 약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바닥 청소 시에는 분무기를 뿌려서 공중에 있는 먼지를 밑으로 떨어뜨린 후 물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

미세먼지로 부터 보호 해주는 음식

녹차 : 녹차에 포함된 탄닌, 카테킨 성분은 중금속의 유입을 막고 몸 안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 준다.

해조류 :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 각종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마늘 : 마늘에는 면역력에 좋은 아연이 함유되어 있으며, 뛰어난 살균 작용으로 수은이나 중금속,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알리신 또한 풍부하다.

도라지 : 도라지는 진해, 거담 작용을 하며 기관지 활성화와 목 주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배 : 기관지 계통에 좋은 음식인 배는 기관지염과 가래 및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김은영

고래도 춤 추게 하는

칭/찬/릴/레/이



인쇄사업본부 이병길 이사님

본인의 업무만으로도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CMS 관련하여 운전이나 매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고 해결해 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늦은 퇴근을 하게 될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늘 웃는 얼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 고마워요!"



POD실 김익성 과장님

강 과장님은 모든일에 성실하면서도 제본에 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이 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가운 도시 남자와 같은 외모와는 달리 아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사실! 아는 분들은 벌써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엄지 척!



제본사업본부 강영일 과장님

태 과장님께서 늘 일찍 출근하셔서 출고 물품들을 미리 정리하시기에, 아무리 많은 출고 건이 있더라도 혼선 없이 매끄럽게 척척 빼낼 수 있죠. 역시 베테랑! 곳은 날씨일 때는 육체적으로 더욱 힘드실 텐데도, 혹여 조금이라도 물품이 손상될까 더 부지런히 챙기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에서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 친절함까지!!! 인생의 선생님이십니다!



제품입출고실 태동호 과장님

김효정 대리는 안산공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 볼 기회는 사실 그리 많지 않지만, 입출고 관련 전화를 하면 목소리에 늘 친절함이 배어 있어서 업무 상 소통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품성!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죠. 덕분에 저도 전화하거나 말을 할 때, 한 번씩 목소리와 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안산공장 김효정 대리님

항상 큰 언니처럼 든든하고 살뜰히 챙겨주시고, 또 편안하게 대해 주셔서 함께 있으면 어느새 힐링이 되곤 합니다. 일에 열정도 넘치시고, 매사에 늘 적극적이신 에너지이저 한혜옥 차장님! 저도 차장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외영업부 한혜옥 차장님

짹짹!! 이번 칭찬릴레이의 마지막 주인공으로는 한혜옥 차장님께서 뽑히셨습니다. 팩컴인 모두가 칭찬받는 그 날까지 릴레이는 계속됩니다! 유공심

핸드폰으로 손쉽게 만나는 유튜브 강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길 시간, 밤에 잠들기 전 뒤척이는 시간.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그저 무료하게만 보내거나, 핸드폰 게임으로 허비하고 계신가요?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바쁜 회사 일정과 집안 일들 등으로 좀처럼 시간을 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꾸준히 학원에 다니기 힘드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어플인 유튜브를 이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나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작은 강의실을 소개합니다.

※ 유튜브 강좌 보는 방법

- 강좌 소개에 나와 있는 큐알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강좌를 볼 수 있습니다.
- 큐알 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해당 강좌명을 직접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양·상식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채널 CBS TV에서 방영하는 미니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TED 강의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자기 계발, 인간 관계, 힐링, 사회적인 내용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 추천 강좌 : 마이크 임팩트, TED

영어 강좌

디바 제시카의 영어 회화

유튜브 전문 BJ인 디바 제시카가 제공하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으로, 발랄하고 경쾌한 분위기 속 이해가 쏙쏙 되는 설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추천 강좌 : 아란TV, 스플래쉬 잉글리쉬, 올리버쌤

미술 강좌

손그림 그리기

연필, 펜으로 그린 간단한 드로잉부터 색연필과 물감을 이용한 수채화까지.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림을 손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 외 추천 강좌 : Drawing hands

운동 강좌

스미홈트

헬스장에서 전문으로 받는 PT 운동, 이제는 집에서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자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추천 강좌 : 이현진 수영, 당구강좌 Billiards

음악 강좌

버블디아

음치, 박치라서 노래방이 두려우신 분들께는 전문 보컬 강사가 운영하는 보컬 강좌를 소개합니다. 음치 탈출!



그 외 추천 강좌 : 어썸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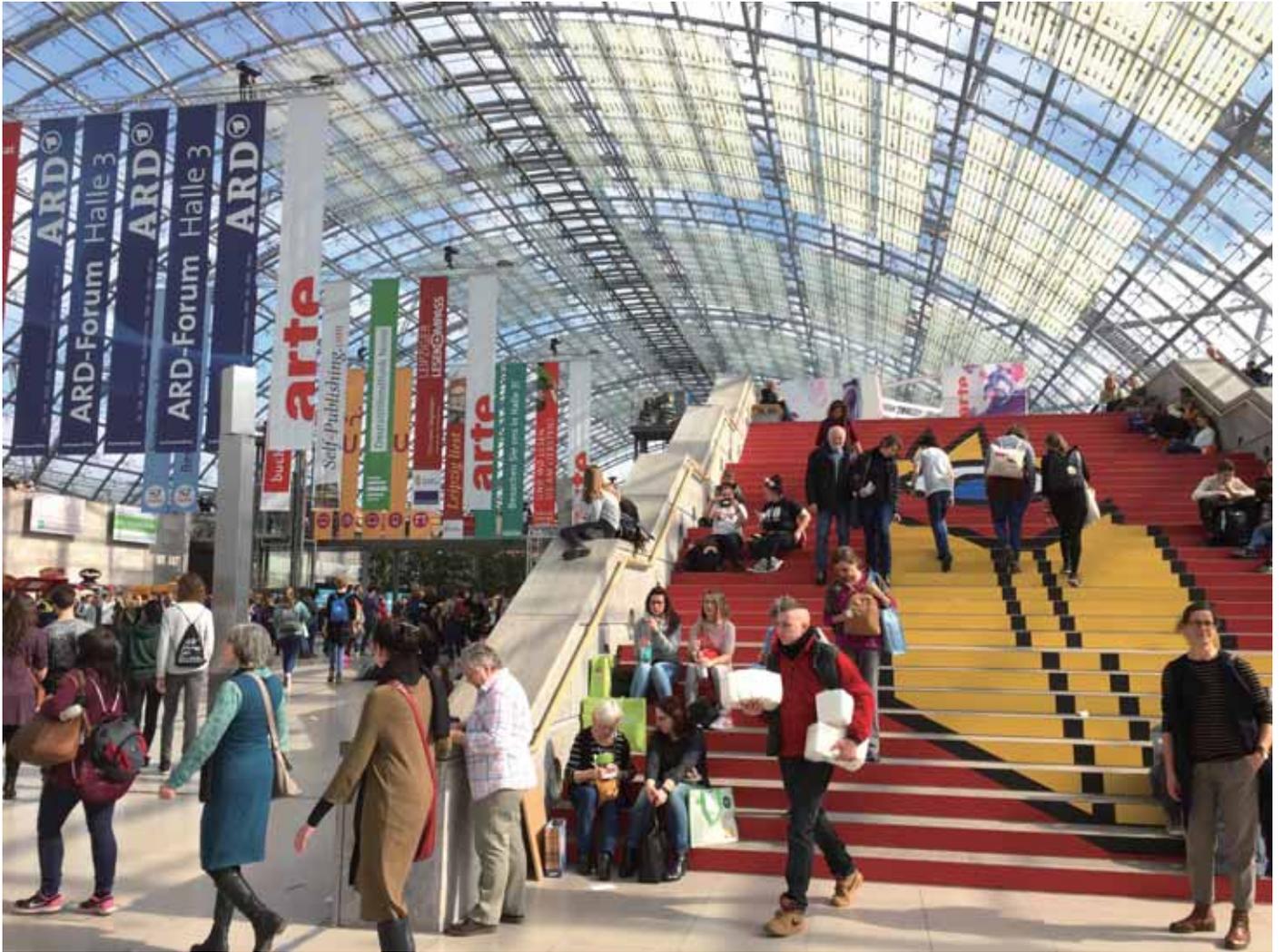
운전 강좌

미남의 운전면허 교실 & 초보운전 교실

면허가 아직 없으시거나 장롱면허인 분들, 이제 막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초보 운전자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 외 추천 강좌 : 도로연수닷컴  박미선



라이프치히 도서전

작가와 독자들의 거대한 축제, 그 속의 PACOM

지난 3월 15일 목요일부터 나흘간, 과거 동독에 속했던 도시들 중 베를린 다음으로 큰 도시인 라이프치히에서 국제 도서전이 열렸다. 독일에서 '라이프치히 국제 도서전'은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다음 가는, 꽤 큰 규모의 도서 박람회이다. 거기에 올해부터 도시 전체에서 열리는 부대 행사를 더하니, 규모로만 보았을 때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서 축제로 평가 받을 정도였다.

자그마치 천 년의 기나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도시, 라이프치히는 바흐가 살았던 음악과 낭만의 도시이자,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된 월요기도회가 시작된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볼 만 한 사실은 문화와 지식이 총 망라되는 도서 박람회가 1632년, 독일 최초로 시작된 유서 깊은 출판 문화의 도시라는 점이라.

도서전이 열리기 전날, 오전 내도록 부스 세팅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도서전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설렘과, 또 낯선 낭만의 도시와 맞닥뜨리게 된 고양감으로 인해 온 마음이 풍선처럼 넘실 부풀어올랐다.

오후 느즈막히 트램을 타고 30분 정도 다운타운으로 들어가 보니, 한창 동서로 갈린 냉전기에 부서졌던 건물의 잔해가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이는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보존하고 있음이라 전해 들었다. 이번 여정에서 반나절 뿐인 자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큰 마음

먹고 길을 나선 최종 목적지는 결국 바흐 뮤지엄이었다. 아주 오래 전에 그가 잉크로 창조해 낸 악보의 원본을 보면서, 반드시 마테 수난곡을 듣고 가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비록 전곡은 아니어도, 결국 뮤지엄에 비치된 작은 헤드셋을 통해 약 289년 전 그가 만든 그 음악을 듣게 되었다. 낭만적인 선율에 폭 빠진 사이,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달아났다. 돌아오는 길, 마트 식당에서 파는 학센(독일 족발)과 흑맥주를 사서 호텔에서 먹을 때까지도 그의 음악은 내도록 귀에 맴돌며 낭만의 여운을 선사했다.

다음 날 난데없이 늦은 봄눈이 엄청나게 내렸고, 비록 영하의 춥고 곳은 날씨였지만 새하얀 설국(雪國)의 풍경과 어제 들던 바흐의 음악을 위한 삼아 전시회를 시작하였다. 독일 출판사 부스들을 방문하고, 팍컴 부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느라고 박람회 기간인 총 4일 동안 정말이지 발바닥이 뜨겁도록 뛰어 다녔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확인해 본 바, 거의 매일 15,000보에서 20,000보의 걸음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팍컴 부스를 방문한 많은 관람객들 중 Gesine Muller 노부부의 경우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 도서 박람회를 방문할 정도라고 한다. 새로 나온 책들도 구경할 수 있고, 해당 작가들도 직접 만날 수 있는 데다 재미있게 분장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등 흥미로운 행사들이 가득해 참 좋다고. 이들이 살고 있는 독일 북동쪽의 드레스덴은 워낙 작은 도시라서, 문화 생활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책과 볼거리가 있



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아서 굉장히 뜻 깊다며, 4일 내내 방문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다.

물론 비즈니스로 온 우리와 관람객으로 온 그들의 시각이 온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도서 박람회를 바라보는 이금슬 좋은 부부의 긍정적이고 즐거운 입장을 전해 듣게 되니 전시 참가자의 입장으로서는 참 든든하면서도 보람찬 기분이 들었고, 고단한 전시 기간의 피로가 잠시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통상적으로 책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다소 정적이고, 지루하고, 또 괜히 어려울 것만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한 권 한 권의 책이 만들어내는 권마다의 여러 문화와 고유



한 세상을. 책과 또 거기에서 파생된 이야기와, 문화를 사랑하는 청춘들의 열정은 눈보라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4일 내내 뜨겁게 이 도시를 달구어 주었다.

황철원

* * * * *

2018 Spring Festival

살랑살랑 돌아온 봄·봄·봄 페스티벌



01 태안 세계튕립축제

일시 : 2018.04.19 ~ 2018.05.13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 보존화 체험, 전통 민속 체험, 마술 체험, 비누방울 체험, 아로마 체험 등

요금 : 성인 1만2천원 / 청소년 및 단체 9천원 / 경로 및 단체 1만원

문의 : 041-675-9200

Tip 꽃지 해안공원에서는 저녁이 되면 코리아플라워파크 빛 축제를 시작하는데요! 이 빛 축제는 마음을 전하는 '러브 빌리지',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빌리지' 등등 8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아름다운 빛 축제를 함께 즐기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 군포 철쭉 축제

일시 : 2018.04.27 ~ 2018.04.29 / **요금** : 무료 / **문의** : 031-390-3560

장소 : 철쭉동산, 철쭉공원, 시민체육광장, 문화예술회관, 노차로드 등 군포시 일원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 푸드트럭, 꽃빛체험마당, 봄봄놀이마당, 철쭉예술시장





03 대구 이월드 별빛벚꽃축제

일시 : 2018.03.24 ~ 2018.04.08

장소 : 대구 이월드, 83타워 전역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 핑크퍼레이드, 핑크마켓, 버스킹, 나이트 DJ파티, 푸드트럭 축제, 스탬프 투어 등

요금 : 입장권 성인 2만원 / 청소년 1만2천원 / 어린이 1만1천원

자유이용권 성인 3만9천원 / 청소년 3만4천원 / 어린이 2만9천원

문의 : 053-620-0001



04 고양 국제 꽃 박람회

일시 : 2018.04.27 ~ 2018.05.13

장소 :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 영국, 중국, 대만, 케냐 등 15개국의 화훼와 문화 전시
-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꽃으로 새롭게 해석한 월드 플라워 페스티벌(World Flower Festival)
- 동화 속 세상을 담은 컬러풀 플라워 랜드, 다채로운 색을 뽐내는 봄의 여왕 톨립 정원
- 호수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는 Fun & Love 포토 존
- 나만의 화분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 전통 문화 체험 등

요금 : 사전 할인예매 8천원, 현장권 성인 1만2천원, 특별할인(외국인 포함) 8천원

문의 : 031-908-7750~4 / 외국인:031-908-7642~3  김은영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 장사도

설 명절 이틀날, 한파를 뚫고 통영으로 내려갔다.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울과는 대비되는 따뜻한 남쪽으로의 여행. 그 자체가 이 겨울, 작은 위안이 될 것만 같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10시, 배를 타기 위해 통영 유람선 터미널에 도착했다. 일찌감치 서두른 덕인지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승선 시간이 가까워지자 선착장은 곧 사람으로 가득 차 북적이기 시작했다.

(여행코스에 따라 거제도에 있는 장사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좋다. 성수기에는 표가 매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금 일찍 도착해서 표를 구하거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분증이 없으면 승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을 한다.)

배는 서서히 출발했다. 한산도를 끼고 도는 코스에는 바다 위 곳곳에 펼쳐진 크고 작은 섬들이 장관을 이루었으며, 그리 빠르지 않은 배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상 시간을 허락하였다. 아직 2월의 추운 날씨임에도 웅감하게 뱃머리에 올라선 사람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새우과자를 한 봉지씩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갈매기 떼가 구름처럼 물려들었고, 선실 안에서는 선장님의 안내 멘트가 들려왔다.

“이 배는 장사도 도착 후 두 시간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시간 되면 가차 없이 출발하오니, 배가 떠난 후 땅을 치고 통곡하셔도 소용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지조 없게 탔던 배 꼭 다시 타시기 바랍니다. 지조 없이 아무 배나 골라 타시면 거제도에 내리시는 수가 있습니다.”

재기 넘치는 안내 멘트에 한참을 웃었다. 선장님 나름의 자부심과 즐거움이 녹아 든, 살아있는 안내 방송이 아니었나 싶다.

40분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우리는 이내 장사도에 도착했다. 들어선 순간 느껴지는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 덕에 마치 별세계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녹음이 우거진 숲과 나무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겨우내 움츠러 든 마음은 새빨갛게 피어난 동백꽃에 절로 탄성을 자아내었다. 심지어 나는 서울과 비슷한 칼바람을 예상하고 두터운 패딩 점퍼까지 걸치고 갔었는데, 홀로 봄의 문턱에 서서 만개한 빨간 동백꽃과 마주한 순간 어쩐지 계면쩍은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장사도는 통영의 외딴 섬이다. 작은 분교와 교회가 있던 이곳은 10만 여 그루의 수 백 년 생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볼거리를 자랑한다. 예로부터 긴 섬의 형상이 누에를 닮아 ‘잠사도’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겨울에는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절경이 아름다워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장사도는, 작중 두 주인공이 현실에서 도망쳐서 하루 동안의 짧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던 꿈 같은 가상의 장소였다. 직접 와 보니 이곳을 촬영지로 선택한 감독의 안목은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드라마처럼 동백꽃이 비현실적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지만, 드라마 속과 같은 선남선녀가 보이지도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와 앞서 맞이한 봄의 기운으로 여기까지 온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곳곳에 전시된 조형물들과 숲의 아름다운 조화를 감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니, 이제는 폐교된 학교와 섬집을 예전 모습으로

복원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운동장이었을 마당에도 신기하게 생긴 조형물과 분재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다. 이런 작고 외딴섬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뛰어놀았을 생각을 하니 새삼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코스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전망대가 위치해 있었다. 장사도 주변의 한려수도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맑은 하늘과 깨끗한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 전망대에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멈추어 있었다. 지난 해 가슴에 담았던 많은 일들을 이곳에서 떨쳐내고, 새해 소망을 바다에 간절히 띄워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 옆에서 나 역시 한숨을 돌리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았다.

장사도 안의 코스는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아 산책 삼아 거닐기에 적합하고, 곳곳에 안락하고 조용한 곳도 많아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참 좋을 것 같다. 물론 비단 연인과 함께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가족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였다.

한겨울 여행에 어디 선뜻 나설 곳이 없어 망설일 때, 뜻밖의 절경이 펼쳐지는 이 곳 장사도로 한 번쯤은 여행해 볼 것을 권해보고 싶다. **📍봉원미**



봄에 떠나는 걷기 여행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생기가 다시금 돌아오는 봄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봄 기운을 물씬 느끼며 걷기 좋은 여행길 8곳을 소개합니다.

인천 강화 나들길 1코스 (석모도 바람길-보문사 가는 길)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곳. 석모도는 바다와 갯벌, 항구와 해변 길로 이루어져 있다.

코스 : 선착장 ⇒ 매음리 선착장 ⇒ 어류정항 ⇒ 민머루 해변 ⇒ 어류정수문
⇒ 보문사 (16km, 5시간 소요)

김포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철책길

문수산성을 따라 오르는 산행길로, 북한과 가장 인접한 구간이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철책 너머로 북한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른 매력으로 꼽힌다.

코스 : 문수산성 남문 ⇒ 홍예문 ⇒ 쌍용대로 ⇒ 조강저수지 ⇒ 애기봉 입구 (8km, 3시간 20분 소요)

강진 바스락길 (남도명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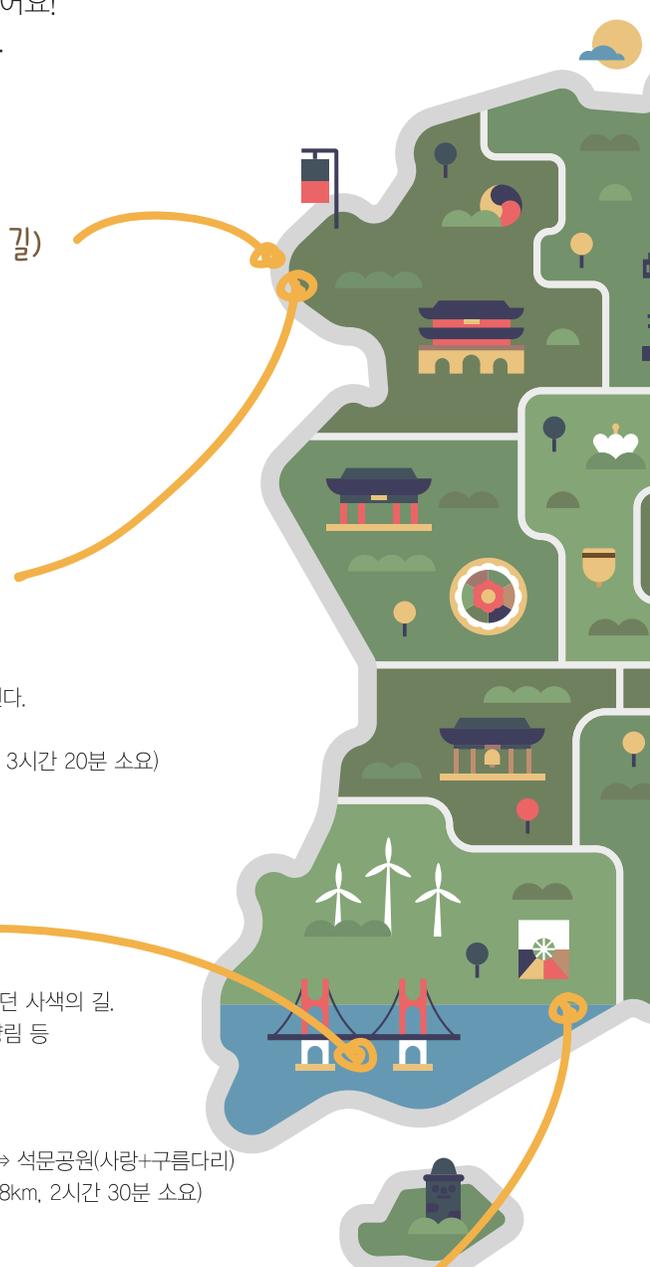
다산 정약옹이 백련사의 혜장선사를 만나기 위해 오고 가던 사색의 길.
백련사, 다산초당, 다산수련원, 석문공원, 주작산 자연휴양림 등
기존의 노선을 활용하여 장거리 걷기 여행길을 조성해,
국제적 명소화를 추진한 길이다.

코스 : 백련사 ⇒ 다산초당 ⇒ 마점마을 ⇒ 용문사 ⇒ 석문공원(사랑+구름다리)
⇒ 소석문 ⇒ 도암중학교 ⇒ 도암 면사무소 (8km, 2시간 30분 소요)

남해 바래길 4코스 섬노래길

아름다운 미조항을 중심으로 송정솔바람해변과 갯가지 동물 모양을 닮은
다양한 섬들을 한 눈에 내려다 보며 걸을 수 있다.

코스 : 송정솔바람해변(게스트하우스) ⇒ 망산정상 ⇒ 미조항(수협 활어위판장)
⇒ 설리해수욕장 ⇒ 송정솔바람해변 (9.5km, 3시간 30분 소요)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 정방사길

우거진 숲숲과 길 옆으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에 상쾌함을 느끼며 정방사로 올라가는 길. 금수산 정방사는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古刹)이며, 마치 제비 집처럼 가파른 절벽 아래 작게 자리하고 있다. 일망무제로 펼쳐지는 월악산 영봉과 겹겹이 이어지는 산 능선, 호수 아래 펼쳐지는 황금빛 노을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코스 : 능강교 ⇒ 정방사 (1.6km, 1시간 소요)



종주 풍경길 종대이길

충주호와 남한강, 계명산 등 뛰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형성된 종대이길은 계명산 줄기인 심향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동시에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조성된 숲길이다.

코스 : 마즈막재 주차장 ⇒ 오솔길 ⇒ 생태연못 ⇒ 1조망대 ⇒ 팔각정 ⇒ 2조망대 ⇒ 출렁다리 ⇒ 육각정 ⇒ 계명산 휴양림 ⇒ 마즈막재 주차장 (7.5km, 3시간 소요)

대구 평광동 왕건길 (팔공산 올레길 4코스)

주변 경관이 뛰어나며 난이도도 딱 쉬운 편이다. 평광동은 대구 대과의 명맥을 이어오는 곳으로, 사과나무가 즐비해 있어 봄이면 소담스러운 사과꽃을 볼 수 있다. 또한 왕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며, 이 지역 지명에도 여기저기에 왕건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코스 : 평광동 입구(효자 강순항나무) ⇒ 평광초등학교 ⇒ 평광지 ⇒ 모영재(신승겸 장군 영각 유히비) 왕복 ⇒ 재바우농원(최고령 홍옥나무) ⇒ 첨백당 ⇒ 평광 종점 정류장 (7.5km, 2시간 30분 소요)

창원 진해 드림로드 2코스 천자봉 해오름길

몇 개의 예쁘고 아담한 시비가 입구에 세워져 있어 감성을 일깨우는 돌레길. 길을 걷다 보면 이순신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들러 울지도 모른다.

코스 : 안민도로(안민휴게소) ⇒ 편백쉼터와 황토길(정용사 앞) ⇒ 해병훈련테마쉼터 ⇒ 드림파크 갈림길 ⇒ 천자암 ⇒ 만남의 광장 위 갈림길 (10km, 4시간 10분 소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BOOK REVIEW

서서히 날씨가 포근해져 가는 게 느껴지는 요즘~! 팩컴 가족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따뜻한 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소개해 드릴게요!

줄거리

30여 년 동안 비어 있던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 들게 된 3인조 도둑 쇼타, 고헤이, 아쓰야는 우연히 예전 주인 앞으로 도착한 고민 상담 편지를 발견하고, 상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답장 편지를 보내는 세 사람, 이들의 솔직하고 엉뚱한 조언은 뜻밖의 결과를 불러 오고, 상담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는 또 다른 멋진 기적을 일구어 내는데...

간혹 이런 종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소설은 시점이 여러 가지라 다소 집중하여 읽기가 어렵고, 내용이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아 복잡할 때가 있는데요.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는 기본이거니와,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끝까지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에 한 번 읽고도 또 다시 읽히는 매력이 있는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또한 철 없고 겁도 많은 3인조 도둑이 우연한 기회에 편지를 읽게 되고, 서툰 표현일 지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정성스럽게 답장을 해 주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독자 역시 함께 해당 사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 내 주변에도 이야기 속 나미야 잡화점과 같은 따뜻한 곳이 존재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따뜻하고 여유로운 이번 주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고 이 계절처럼 기분 좋은 훈훈함을 느껴 보시길 바라요! **박다솜**



추운 겨울 동안 기다린 파스한 봄,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 정화 식물



틸란드시아 01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며 인기가 많아진 틸란드시아 일명 '먼지를 먹고 사는 식물'이라고 하죠! 자라는 데에 흙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번식력과 자생력이 매우 강한 식물이에요. 이러한 틸란드시아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수치를 낮춰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2 스투키

선물용으로도 참 좋은 스투키는 다육 식물이라 겨울철에도 걱정 없고,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라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산세베리아 종보다도 공기 정화 능력이 3배 이상 뛰어나기 때문에 거실, 사무실, 공부방 등에 가까이 두면 좋겠죠! 공기 정화 능력 외에도 음이온 방출, 전자파 차단 등 다른 여러 효능까지 두루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키울 때에는 자칫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피해 줘야 하며, 물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특성이 있으니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요!



공기 정화 식물 중 가장 대표적인 종으로 꼽히는 산세베리아! 밤에도 광합성 작용을 하며, 다른 식물들보다도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여느 식물들과는 달리 관리가 쉽고,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인 식물이라고 해요.

산세베리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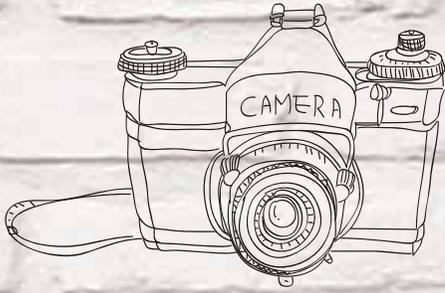
스킨답서스는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를 제거해준다는 식물입니다. 거기에 음식 냄새를 없애 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주방이나 거실 등에 두고 키우기 정말 좋겠죠? 덩굴성 식물이라 걸이용으로 내려 키워도 참 좋지만,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해로운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정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04 스킨답서스



05 스파티필름

예쁜 꽃과 파릇파릇한 잎을 사계절 내내 자랑하는 스파티필름. 스파티필름 역시 그리 까다롭지 않은 종이라 식물을 잘 못 키우시는 분들도 손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강한 햇빛에는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한 수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범한 화분뿐 아니라 물이 들어 있는 예쁜 유리병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박다숨**



찰칵소리

semii@gopacom.com

재밋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 주세요!





PACOM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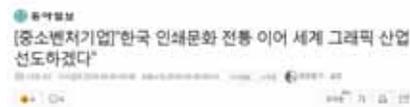
2017년 팩컴 AAP(주) 결산 품평회 및 워크샵 개최

지난 1월 12일 금요일 ~ 1월 13일 토요일에는 팩컴AAP(주) 최숙 대표이사와 조성길 상무이사를 모시고, 대리급 이상 직원 50명이 여주 일성남한강콘도에서 팩컴AAP(주) 결산 품평회 및 워크샵 자리를 가졌다. 이날 품평회는 2017년의 생산 제품 품질에 대한 평가와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 간 이견과 문제점 토론으로 이어졌다. 2018년에도 최고의 품질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1박 2일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1차 토론 종료 후에는 한 자리에 모여 약간의 다과, 주류를 곁들인 화목한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진행된 이번 팩컴 AAP(주) 품평회 및 워크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매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직원 간담회

지난 2월 2일 금요일, 최숙 대표이사와 생산본부 여직원들 간 저녁 식사 자리가 마

련되었다. 업무 종료 후, 대표이사와 여직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 생활을 위시한 여러 이야기들을 허물 없이 나누는 뜻 깊고도 유익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 전원의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념 사진을 모두가 나누어 가지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한국 인쇄 문화 전통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 선도하겠다”



“한국 인쇄 문화 전통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 선도하겠다”

지난 2월 1일 목요일, 팩컴코리아 김경수 대표이사는 당사 대표이사실에서 “한국 인쇄 문화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골자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관련 기사는 2월 9일 금요일 자 동아일보 C1면 1단에 기재되었다.

인쇄업 글로벌화 나선 팩컴코리아 인쇄물 기획부터 배송까지 원스톱... 지난해 상반기 누적수출 3억 달러 “인쇄, 비즈니스 아닌 감성 공유” www.gopacom.com - 언론속 팩컴 참조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지난 3월 5일 월요일, 근로자 대표위원 및 조성길 상무이사가 참석한 2018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가 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교육 참가

지난 3월 7일 수요일 ~ 8일 목요일 양일간, 제본사업본부의 정대성 과장, 이선희 사원, 인쇄사업본부의 김도원 사원, 남진만 사원 등 총 4인이 수원 대한적십자사 주관 응급처치교육에 참가하였다. 이들 4명은 총 16시간의 교육 이수 후 정식 수료증까지 발급받게 되었다. 아울러 향후 응급 사항 발생 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주요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ICTI 공장심사 통과

지난 2월 1일 목요일 ~ 2일 금요일 양일간, LEGO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AUDIT 인증 심사가 진행되었다. 직원들이 평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데다, 원

PACOM NEWS

활한 협조까지 더해져서 올해도 변함없이 무난하게 통과되었다는 희소식이다. 향후 6~8월 사이 중간 점검을 받게 되니, 주지하다시피 이 때 역시 직원들의 원활한 협조가 요구된다.



직원 자녀 탄생 : 이준 사원

인쇄사업본부 운전팀 이준 사원이 지난 3월 2일 금요일, 예쁜 딸 이다민 양의 아버가 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진다. 헛헛한 타향살이 중 새로운 식구의 탄생으로, 세 식구가 오순도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지난 3월 12일 월요일, 팩컴코리아 해외 사업기획팀 마케팅 부서에 김홍철 본부장이 입사하게 되었다. 김홍철 본부장은 발군의 외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실력자이며, 팩컴 마케팅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주요 인재이다.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4층 사무실 공간 활용 개선 작업 완료

군포공장 공간 활용 개선 작업 및 4층 사무실 부서 간 자리 이동 배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토요일, 주말을

이용하여 4층 전체 사무실 중 일부를 현장으로 개선 및 확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공사를 통해 대부분의 부서가 열린 공간에 위치하게끔 개선되었다. **이원성**





봄봄

: 황철원

깊은 계곡
버들 강아지
제 꼬리를 털어
윤기를 내뽐고

산 비탈 밭
군데군데
적갈색 걸금이 뿌러지면

하얀 안개 같은
입김을 내뿜으며
암소와 농부는
봄을 실어 나르고 있다



[북메이크]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 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